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4, 1부

열왕기하 13-14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후는 종교개혁을 주도하여 바알을 없애고, 금송아지를 없애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로 대체되었고, 이제 그는 여호아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786년경까지 통치할 것이며, 795년경에는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자, 정확히 왜 공동 섭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753년까지 통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북쪽 왕국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요아스의 아들을 조금 더 높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두 왕국 사이의 연관성을 봅니다. 실제로 요아스는 여호아스이기도 하므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요아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왕위에 올랐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남북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791년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포로가 됩니다. -큰 아들 웃시야, 즉 아사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샤가 얼마나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였다는 것이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기간은 앞으로 15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웃시야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웃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요아스, 아마샤, 여로보암 세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는 성공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여호아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아스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먼저 13장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계속 그 안에 있었다." 그 죄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 아론 계통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날짜와 다른 날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왕국의 모든 왕에게 반복되는 이 문구를 들을 때 그는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14절을 보면 “...엘리사는 병으로 죽을 지경이었던데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만나러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울었느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가 외쳤다.”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기억하냐고 물어봐서 내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겠습니다만, 2장에서 열왕기하,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을 돌이켜보면 12절, “..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라.” 분명히 그 문구는 여호아스 왕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당신은 이전의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방어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 여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각 캠프마다 한 발씩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발을 부두에 올려놓고 한 발을 보트 위에 올려놓으면 물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통로의 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호아스의 본문은 실제로 10절부터 13절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절, “...유다 왕 여호아스 제삼십칠년부터...” 12절, “여호아스 왕의 남은 사적은 다 행하였더라.” 13절,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전형적인 선언입니다.

그는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그만큼 늙었습니다. 그는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죽었다. 그의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의 뒤를 이어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14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엘리사와 엘리사와의 관계,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그 주변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나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아스의 실제 이야기 외에 엘리사에 관한 이 자료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역사에서 엘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 생각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17장에서 분명하게 시작된 이 자료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의 사역이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그것을 인식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분열된 마음을 봅니다. 그... 내 생각엔 여호아스는 바알의 위협이 처리되고 없어진 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상을 부수어야 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는 거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게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

네, 우리는 여호아스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지자와 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혼합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편으로 엘리사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를 쫓지 않습니다. 15절: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활을 손에 잡으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그것을 취한 후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싸라, 엘리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총을 쏘았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와 승리의 화살, 곧 아람에게 승리의 화살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람은 시리아이고 그 수도는 다마스쿠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람 사람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841년 예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 특히 유다에게 큰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예후가 그 나라의 모든 훌륭한 지도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937년의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군 지도부를 통째로 청산함으로써 1941년과 42년에 형편없는 지도력 때문에 수백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1942년을 만들었다.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선물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좋아, 우리가 앗수르의 세력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괴롭힘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호아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향한 다음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잠깐만, 여기 전화기를 들고 있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누군가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글썄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방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흘러나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에게로 향하기를 바라면서. 구원은 당신과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살을 집으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세 번 치고 멈췄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대여섯 번 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람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 번만 패배했습니다.

내가 그 시점에 여호아스였다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나요? 거기에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데이빗, 좀 더 열정을 갖고 싶나요? 그는 물어봤어야 했어요. 나는 더 많은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글썄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에게 유리잔 반만 가득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글썄요, 그런데 좀 바보같네요. 내 말은, 내가 그녀에게 한 잔 가득 달라고 했는데 그가 나에게 반 잔만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들이 정확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 맏소사, 난 최선을 다하길 원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진 모든 것을 원합니다. 열성.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부탁하길 바라나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구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대담한 믿음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 내가 당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묻지 않았어요. 나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감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한다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 약탈자들은 매년 봄마다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탈자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천국에서도 그 일이 즉각적으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그 사람들이 달리는 걸 보고 싶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인 마지막 장면입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부활. 그것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삶.

무덤에서의 삶.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 모든 다양한 기적, 모든 문제를 모두 정제해 보면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나는 내 사역과 내 삶에 대해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때때로 그들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의 서론 사역을 살펴보면 2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의 유독한 물을 깨끗하고 깨끗한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곰이 42명의 청년을 죽인 사건입니다. 와.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부패한 자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명을 가져다주시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아우라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숨결입니다. 예, 예, 예.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가 예후부터 본, 다소 냉담한 다양한 왕들과는 대조적으로, 온전히 헌신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곳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당신이 그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왕국을 잃게 될까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 하젤은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 전임자입니다.

즉, 여호아하스의 전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죽은 지 천년이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는 충실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을 만해요. 천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당신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어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가 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없앨 수 있나요? 글썄요, 결국 그는 그것들을 다 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호세아에게서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북왕국의 멸망 직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맏소사,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계약을 백만 조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와, 정말 신이네요. 그래서 그는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흥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잉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 왕들의 책은 유배 기간 동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전 버전인가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예, 우리는 망명 중이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파괴하거나 그의 면전에서 추방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와, 그렇다면 또 믿음이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유배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